

# 우크라, 자원자로 4만명 강습여단 결성

## 봄철 대반격 작전 준비 분주

### 신병·경찰관·참전용사 8개 여단

### 점령지 탈환전 등에 투입될 예정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개시할 대반격 작전 등을 위해 8개 강습여단을 새로 결성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날 "4만 명 규모의 강습여단 구성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아직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기까지는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결성된 여단들이 새 군사장비들로 무장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정규군과 함께 적절한 반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2~3주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습부대는 모두 자원자들로 구성됐으며, 새로 소집된 신병과 경찰관, 이전에 러시아군과 싸운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멘코 장관은 신규 여단을 내무부가 창설했지만, 일단 전선에 배치되면 국방부가 이들을 통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강습여단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격렬한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동부 도시 바흐무트 전투에 투입되거나, 조만간 시작될 봄철 대공세를 지원하는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은 근 1년 동안 소도시 바흐무트에서 치열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전투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러시아군 2만명 이상이 숨지고 8만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발표를 영타라고 즉각 반박했지만, 러시아군이 대규모 손실을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정보 보호를 위해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도 바흐무트에서 심각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바흐무트 전투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1만5천500명에서 1

만7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최근 바흐무트를 방문해 "우리는 효과적인 방어를 보장하고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입히는 데 필요한 여러 결정들을 내렸다"고 밝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의 유출 기밀문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날씨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며 대반격 작전을 위한 군대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위게임 결과 우크라이나가 교착 상태인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선 12개의 새로운 여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장비로 3개 여단을 구성하고, 9개 여단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전자와 장갑차 등으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새로 결성한 8개 강습여단이 대반격 작전에 투입될 12개 여단의 일부인지, 아니면 이들을 지원할 추가 예비부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통과... 우간다 의회가 2일(현지시간) 수도 캄팔라에서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이 법안은 무세비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는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 "K팝 콘서트 너무 비싸요"... 태국 팬들 불만

### 평균 21만원...블랙핑크 VIP 58만원

동남아시아 한류 중심지인 태국에서 K팝이 변함없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콘서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팬들의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한국 가수들의 태국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팬들은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소비자보호원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3일 현지 매체 MGR온라인에 따르면 올해 태국에서 티켓이 판매된 K팝 콘서트의 평균 가격은 5270บาท(20만8000원)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470บาท(17만6000원)보다 17.9% 올랐다. 10년 전인 2013년 평균 가격 3302บาท

(13만원)과 비교하면 59.6% 치솟았다.

예전에는 K팝 공연의 가장 비싼 티켓이 6000บาท, 가장 싼 티켓은 1050บาท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에 따른 혜택도 미미하다는 불평이 많아졌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오는 27~28일 태국 최대 규모 공연장인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공연의 VIP 티켓 가격은 1만4800บาท(58만3000원)이다.

콘서트 가격 부담에 일부 팬들은 태국 소비자보호원을 찾기도 했다. 올해 2월 방콕 공연을 한 스트레이키즈의 팬클럽은 지난해 10월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연의 최고가 티켓은 8500บาท(33만5000원)이었다. /연합뉴스



영국 근위대 찰스 3세 대관식 리허설...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 인근 더몰에서 근위대가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대관식은 오는 6일 치러지며 203개국 대표를 포함해 2200여명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 우크라 공격받을라...러, 전승절 열병식 취소

### 가디언 "러 군사적 취약성 인정"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절(5월 9일) 열병식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우려로 속속 취소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 주지사가 안전 우려로 전승절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러시아에서 이날까지 전승절 열병식을 취소한 지역이 최소 6곳이라고 전했다.

사라토프주는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644

km 떨어져 있다.

가디언은 러시아의 잇따른 전승절 취소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적 취약성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뿐 아니라 러시아 내 벨고로드, 쿠르스크, 보로네시, 옴스크, 프스코프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취소됐다.

러시아 전승절은 1945년 옛 소련이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을 기념한다.

매년 전승절에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기회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달 29일에는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에 있는 유류 저장고가 우크라이나의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으로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다.

나탈리아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병참 기지를 파괴한 것은 우리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172년 전 佛 佛술과 한국 술 만남 날 아시나요

### 나주목사·몽티니 영사 만찬 기념

###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만찬 행사

조선과 프랑스가 1866년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도 전에 양국 관리가 만나 각국을 대표하는 술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상대 나라의 정취를 맛보는 자리가 있었다니, 이 얼마나 낭만적인가.

1851년 5월 2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주재하던 프랑스 영사 샤를르 드 몽티니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난파한 프랑스인 선원들을 데리고 돌아가기 전 당시 비금도를 관할하던 나주 목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다.

몽티니 영사가 선원들과 상하이로 떠나기 하루 전 나주 목사에게 샴페인을 선물했고, 조선의 술을 담았던 도자기를 받아와 후일 프랑스 정

부에 기증했다는 일화는 프랑스 외교문서, 조선 시대 문헌 비변사등록에 등장한다.

그로부터 꼭 172년이 흐른 2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그날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전통주 막걸리와 프랑스 샴페인을 맛보는 행사를 몽티니 영사가 받아온 도자기를 전시 중인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실제로 나주 목사가 몽티니 영사에게 대접한 조선 술은 막걸리로 추정된다는 게 대사관 측의 설명이다.

막걸리와 샴페인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던 이날 행사에는 샤를르 고메르 프랑스 샴페인협회 사무총장, 정구석 한국 막걸리협회 고문, 양국 의 첫 만남을 알린 피에르 에마누엘 루 파르 7대학 부교수를 비롯해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 파리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효율 LED플로라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면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나주교육은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나주교육"을 지향합니다.

나주 중앙회 교원봉사관  
 NaJU Seungnam Teachers' Museum

●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  
 ●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  
 ●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  
 ●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